

馮乃超의 《紅紗燈》 研究

鄭守國*

◁ 목 차 ▷

- | | |
|-----------|------------|
| I. 序論 | 3. 病的 아름다움 |
| II. 本論 | 4. 죽음의 禮讚 |
| 1. 青春의 쇠퇴 | III. 結論 |
| 2. 失戀의 슬픔 | |

I. 序論

《홍사등(紅紗燈)》은 풍내초(馮乃超)가 주로 1926년에 쓴 시를 수록한 상징주의 시집으로서, 1928년 4월에 창조사총서 제20종으로 출판되었다. 그러나 〈서(序)〉에서 이 시집에 대해 “나뭇가지에 앉은 작은 새가 떨어뜨린 깃털 같고”, “곤충이 벗어 던진 옛 껍질”¹⁾ 같은 과거의 기록이라고 기술한 것으로 보아, 《홍사등》이 출판되었을 무렵에는 이미 그의 시풍에 변화가 생겼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그는 《홍사등》이 출판되었을 때는 이미 상징주의에서 혁명문학으로 전향하고 있었다. 따라서 풍내초가 상징주의 경향을 유지한 기간은 불과 2년도 되지 않았다.

모두 43수의 시가 실린 이 시집은 전체가 “애창집(哀唱集)”, “환상의 창(幻窗)”, “마치(好像)”, “죽음의 자장가(死的搖籃曲)”, “홍사등(紅紗燈)”, “시들어 버린 장미(凋殘的薔薇)”, “고병집(古瓶集)”, “일요일(禮拜日)”의 8부분으로 나뉜다. 대부분 1926년 2월 이후의 《창조월간(創造月刊)》과 《홍수(洪水)》에 발표한 시들이다.

그의 상징 세계에서는 대부분 죽음에 대한 전율과 노래, 병태적인 신음과 환희, 적멸의 탄식과 회귀가 두드러지며, 이러한 것은 모두 퇴폐, 절망, 신비라는 “현대주의 정서”의 전형적인 반영이다.²⁾ 따라서 《홍사등》에는 슬픔과 의기소침한 정서가 배

* 建國大學校 中語中文學科 講師

1) 馮乃超, 〈序〉: 「小鳥停在樹梢振落它的毛羽……昆蟲會脫掉它的舊殼」(《紅紗燈》 上海, 創造社出版部, 1928), 1쪽.

2) 朱壽桐, 《情緒: 創造社的詩學宇宙》(上海, 上海文藝出版社, 1991), 242쪽 참조.

어 있으면서도, 신비롭고 몽롱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주자청(朱自淸)도 그의 시에는 “최면 같은 힘이 있으며, 퇴폐, 음영, 몽환, 선향을 노래하고 있다”³⁾고 평가했다. 이와 같이 풍내초의 시에는 1920년대 중국 상징주의 시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홍사등》에 실린 시를 대상으로 풍내초가 추구하는 상징적 체계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II. 本論

1. 靑春의 쇠퇴

풍내초의 시에는 처량하고 감상적인 정서가 전체의 분위기를 이끌어 가고 있다. 이러한 시적 분위기는 이미 지나간 청춘에 대한 회고와 아쉬움, 고통으로 가득 찬 인생 길에서 느끼게 되는 감개와 탄식이 함께 어울려 소침한 정서로 나타난다. 풍내초는 이미 《홍사등》의 서곡인 〈슬픈 노래(哀唱)〉에서 자신의 이러한 감정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내 침묵하는 인생이 초채함을 슬퍼하고
내 다감한 청춘이 시들을 슬퍼한다
〈시들어 버린 장미가 나를 괴로움에 병들게 하네〉
(悲我沈默的人生憔悴/ 哀我多感的靑春告衰) <凋殘的薔薇惱病了我>

풍내초에게서 청춘은 젊음의 활력이 넘치는 인생의 황금기가 아니라, 생명력이 소멸되어 가는 슬픔으로 다가온다. 한 치도 어김없이 흘러가는 기계적 시간이 인생을 초채하게 하고, 청춘을 시들게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화자는 이미 한 순간에 지나가 버린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깊은 탄식에 빠지며, 인생과 청춘에 대한 아쉬움과 슬픔의 감정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 ① 권태로운 고목의 가지는 근심을 알려주고
황금의 새로운 가을도 노쇠한다
〈침묵〉
(怠倦的枯枝愁訴/ 黃金的新秋也衰老) <默>

3) 朱自淸, 〈詩集·導言〉, 《中國新文學大系》第8集: 「得到催眠一般的力量, 歌詠的是頹廢, 陰影, 夢幻, 仙鄉.」(上海, 上海良友圖書印刷公司, 1935), 8쪽 참조.

② 월하미인이 순식간에 말라 시드네

연약한 생명이어
연약한 청춘이어
청춘과 과거가 함께 지나갔네
내 지쳐 위태로운 몸과 마음
지쳐 버린 영혼

<죽음>

(曇花枯凋在瞬息間/ 脆弱的生命喲/ 脆弱的青春/ 青春與往昔俱逝了/ 我疲憊將殆的身心/ 疲憊的靈魂) <死>

위의 두 인용시에서는 생명의 활기찬 모습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오히려 생명력이 쇠퇴해 가는 무겁고 우울한 정서만이 시적 분위기를 지배할 뿐이다. 인용시 ①에서 생명력을 상실한 고목은 더 이상 새싹을 피울 수 없는 권태로운 일상 속에서 생명의 소멸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황금빛에 물든 풍요로운 가을도 결국에는 겨울의 조락(凋落)으로 향하게 된다.

인용시 ②에서 월하미인(月下美人)은 화자 자신의 객관적 상관물이다. 순식간에 시들어버린 월하미인의 연약한 생명력은 다름 아닌 화자 자신의 연약한 청춘을 의미한다. 화자의 청춘과 과거는 모두 시들어 버렸고,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지쳐버린 영혼 밖에는 없다. 따라서 화자는 생명력이 쇠퇴한 자신의 존재적 현실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① 누가 길가 시든 풀 속에서

흩어진 이름 없는 황폐한 무덤
그 안에 잠자고 있는 불행한 옛 사람
영화가 시들어 버린 한 세대의 옛 꿈을 발견할 수 있는가
.....

모두가 파괴
신선함과 진부함을 막론하고
모두가 애수
운명의 흥함과 쇠함을 막론하고
.....

아 인생은 그대의 존재를 적게 하려는 듯하고
만능의 조물주는 창조 기쁨이 없다

<슬픈 노래>

(誰不會在路傍的衰草中/ 發見零亂無名的荒塚/ 裏面或眠着薄倖的古人/ 或朽着榮華一代的古夢//// 一切都是毀滅/ 勿論新鮮與陳舊/ 一切都是哀愁/ 勿論命達與命瘦//// 哦 人生若少了你的存在/ 萬能的造物主沒有創造的

高興) <哀唱>

② 공허한 생명은 시간의 접혀진 주름 속에 잠복해 있다

<겨울밤>

(空疎的生命 潛伏在時間底折疊的皺紋) <冬夜>

화자에게서 인생이란 허무하기 짝이 없는 꿈과 같다. 인용시 ①에서 영화로운 한 때를 보냈던 사람도 결국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길가 시든 풀 속”에 흩어진 이름 없는 “황폐한 무덤”에서 한층의 흙으로 변할 뿐이다.

인생이 짧고 허무하다는 인식에 기초한 부정적인 생명 인식은 그들에게 시간에 대한 강박 관념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현대 문명의 산물인 기계적인 시간 관념은 풍나초를 비롯한 상징파 시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혐오스런 대상이다. 시계 바늘에 의해 확정되는 기계적인 시간은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번 지나가면 되돌아오지 않는 속성으로 인해, 이들 시인에게 늘 시간에 대한 초조감을 불러일으킨다.

인용시 ②에서도 “공허한 생명은 시간의 접혀진 주름 속에 잠복해 있다”는 표현처럼 시간의 흐름 속에서 느껴지는 축소된 생명 인식은 결국 생명의 무의미함을 드러낸다. 그래서 “아 인생은 그대의 존재를 적게 하려는 듯하고, 만능의 조물주는 창조의 기쁨이 없다”고 탄식하는 것이다.

이처럼 인생이란 일초도 어김없이 다가오는 기계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그 인생은 신선함과 진부함, 흥함과 쇠함을 막론하고 결국에는 모두가 파괴요, 슬픔으로 다가온다.

슬피 소리 내 우는 밤비
남김없이 뚝뚝 떨어지는 눈물
현실의 애수를 씻어 버리네
쓰라린 마음의 피로를 씻어 버리네

듣고 싶지 않은 빗물 소리
보고 싶지 않은 밤 그늘
기억하고 싶지 않은 마음 상한 운명
뿌연게 근심으로 가득 찬 반평생
<슬픈 노래>

(哀哀哭泣的夜雨/ 淋漓盡緻的淚水/ 洗盡現實的哀愁/ 洗盡痛傷的心瘁// 不願聽的滴滴的雨聲/ 不願看的渾渾的夜陰/ 不願憶的心傷的命運/ 陰霾愁苦充滿的半生) <哀唱>

“슬피 소리내 우는 밤비”와 “남김없이 똑똑 떨어지는 눈물”은 슬픔이라는 동일한 이미지를 형성하며, 이는 “현실의 애수”와 “쓰러린 마음의 피로”와 연결되어 슬픔의 깊이를 더하고 있다. 빗물 소리를 듣고, 밤 그늘을 볼수록 과거의 가슴아픈 슬픔이 다시 상기된다. 따라서 자신의 아픈 기억이 다시 떠오르는 것을 거부하는 화자에게서 인생은 “뿌옇게 근심으로 가득 찬” “기억하고 싶지 않은 마음 상한 운명”으로 각인된다.

2. 失戀의 슬픔

《홍사등》에 묘사된 풍내초의 시에서는 환상적이고 신비한 애정을 연출하면서도, 불꽃처럼 타오르던 애정이 식은 뒤 느끼게 되는 고통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는 체념의 태도를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애정은 ‘꽃’이라는 상징물을 통해 암시된다.

- ① 사랑의 꽃망울이 사계절 터져
 옛 성안의 궁궐과 누각을
 우수에 파묻힌 현대를
 내 과거의 티끌을 묻어 버리네
 〈나는 당신의 창백한 꽃이 피길 원하네〉
 (愛戀的花蕾四季常綻開/ 在古城堡裏的宮殿與樓臺/ 也在憂愁煙沒了的現代/
 也埋掩在我過去的塵埃) 〈我願看你蒼白的花開〉
- ② 고민은 인생의 안식처
 비석은 죽은 뒤의 대가
 내 장엄한 비문을 적을 필요 없어요
 언제나 장미꽃을 바칠 수 있다면
 〈슬픈 노래〉
 (苦惱是人生的棲家/ 墓石是身後的代價/ 不用鐫我莊嚴的碑文/ 要是常常供奉
 薔薇花) 〈哀唱〉

《홍사등》에서 꽃은 애정이나 청춘을 상징하는 풍내초 식의 표현이다. 애정への 도취는 때때로 인생과 운명에 의해 버림받고 소외당한 인간의 내면 의식을 극복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인용시 ①에서 화자는 사랑을 일년 사계절 중 막 피어나려고 하는 “꽃망울”로 비유하며, 그 꽃망울을 통해 “옛 성안의 궁궐과 누각, 우수에 파묻힌 현대, 내 과거의 티끌을 묻어 버림”으로써 과거의 비애와 현재의 우수에

서 벗어나 정신적인 위로를 받고자 한다. 인용시 ②에서도 고민 속에서 인생을 마친 뒤 그 대가로 얻게 되는 의미 없는 비석보다는 그녀의 사랑을 상징하는 장미꽃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보상받고자 한다. 이처럼 꽃은 화자의 사랑을 상징하는 가시적(可視的)인 표현인 동시에 현실적인 고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신적인 힘으로 인식되어 진다. 그러나 그의 시에서 장미로 대표되는 꽃의 이미지는 아름답고 화사한 느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들고 창백하여 애상적인 정서를 환기시킨다. 이처럼 시들어 생명력이 상실된 꽃은 이미 식어 버린 애정과 관련되어 나타난다.

- ① 오늘밤은 사랑에 눈멀어 헤어지기 싫은 정도 없이
시들어 버린 장미 한 송이만 남았다
〈시들어 버린 장미가 나를 괴로움에 병들게 하네〉
(今夜沒有情痴的纏綿/ 剩下一朵凋殘的薔薇) <凋殘的薔薇惱病了我>
- ② 여인이여 당신의 그림자는 영원히 저승에 숨어있고
당신의 약속은 세상 속 빛 바랜 장미 화환에서 시든다
〈서로의 약속〉
(女人喲 你底影兒永遠地隱在幽冥之間/ 你底約束有若委在塵埃裏面的 褪色的 玫瑰花環) <相約>
- ③ 내 환영 속에 보이는 것은
창백하게 떨고 있는 흐린 불빛과
한 송이 힘없이 시들어 떨어진 장미
강렬히 키스하던 남겨진 옛날의 꿈들
〈현재〉
(我看得在幻影之中/ 蒼白的微光顫動/ 一朵枯凋無力的薔薇/ 深深吻着過去的 殘夢) <現在>

“장미”는 정춘의 때에 불꽃같이 타오르던 애정을 의미하는 상징물이다. 그러나 이 세 편의 인용시에서는 모두 꽃이 활짝 핀, 생명력으로 충만한 장미가 아니라, 한결같이 이미 시들어버린 추한 모습의 장미로 묘사된다. 이처럼 시든 꽃이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미지는 모두 이미 식어 버린 애정이다. 그녀와 “강렬히 키스하던” 꿈들은 이미 과거의 기억으로만 남을 뿐, “오늘밤은 사랑에 눈멀어 헤어지기 싫은 정도 없이” “시들어버린 장미 한 송이만 남았고”, “당신과의 약속도 세상 속 빛 바랜 장미 화환”처럼 시들어 버렸다. 따라서 달콤한 애정 속에서 정신적인 위로와 영원한 안식을 찾고자 했던 화자의 기대는 여지없이 깨어지고, 남은 것이라고는 “창백하게 떨고 있는 흐린

“불빛” 같은 희미한 추억과 “한 송이 힘없이 떨어진 장미” 같은 실연의 비애뿐이다.

- ① 다만 붉게 칠한 입술이
다감한 내 청춘을 들여 마시고
오늘 아침 창백한 미소 시들고
밤의 정열도 잿더미로 변하네

다만 붉게 칠한 입술이
다감한 내 청춘을 뜨겁게 달군다
새빨간 정열이 시들어진다면
이글거리는 연모의 정은 어찌 다할 것인가
<시들어 버린 장미가 나를 괴로움에 병들게 하네>
(只因爲有塗朱的嘴唇/ 吸飲我多感的青春/ 今朝蒼白的微笑凋殘/ 宵來的情熱成灰燼// 只因爲有塗朱的嘴唇/ 烘熱我多感的青春/ 腥紅的情熱許凋殘/ 炎炎的戀慕怎能盡) <凋殘的薔薇惱病了我>

- ② 치열한 정 of 사랑 꿈은 깨졌다
보세요 장엄한 생명의 후광
마음의 상처를 비추는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죽은 절망
<밤>
(一當熾情的戀夢破了/ 你看吧 莊嚴的生命的後光/ 映照心傷的殉情的絕望)
<夜>

“붉게 칠한 그녀의 입술”이 “내 청춘을 들여 마시고”, “내 청춘을 뜨겁게 달구던” “새빨간 정열”도 어느새 시들어 싸늘한 “잿더미”로 변했다. 이처럼 자신의 청춘을 바쳐 애정에 도취하고자 했지만, 오히려 청춘만 헛되이 흘러갔을 뿐, 그녀의 애정을 얻는 데는 실패했다. 결국 치열했던 사랑의 꿈이 깨어진 뒤 화자에게 찾아오는 것은 마음의 상처뿐이다. 이 상처는 사랑을 이루지 못한 화자를 절망적인 상태로 빠지게 한다. 그러나 풍내초는 죽음과도 같은 절망을 느끼면서도 실연으로 인한 고통과 절망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보인다. 불같이 타올랐던 후회 없는 사랑의 환락 뒤에 찾아오는 비애를 담담하게 맞이하는 것이다.

뚜벅거리는 발소리를 자세히 듣는다
슬프고도 슬픈 소리를
뚜벅거리는 발자취를 자세히 바라본다
찍혀 있는 암담한 잿빛을

붉은 초가 다 탄 뒤
남아 있는 잿더미 초의 심지
애정이 끝났음을 알리네
구멍 뚫린 재난 뒤의 여생
.....

나는 금빛 찬란한 술잔
진한 향기 풍기는 순수한 술을 사랑하지 않네
똑똑 떨어지는 쓰디쓴 눈물로
내세의 꽃봉오리가 꽃피도록 뿌리고 싶어

〈슬픈 노래〉

(細聽步步的聲聲/ 聲聲發着悽愴的悲鳴/ 細看步步的足跡/ 跡跡印着暗淡的灰色// 紅燭燒殘後/ 剩下灰燼的燭心/ 愛情告終了/ 空洞洞的劫後的餘生//
// 我不愛金光燦爛的酒杯/ 盛載芬芳熾烈的醇酒/ 願常得滴滴苦澀的眼淚/ 淋瀝開花來世的蓓蕾) <哀唱>

화자는 이 시의 곳곳에서 실연의 흔적을 찾아낸다. “뚜벅거리는 발소리”가 “슬프고 또 슬픈 소리”를 내고, “뚜벅거리는 발자취”가 “암담한 잿빛”으로 보이는 것은 이미 애정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붉은 초” 역시 과거의 정열적인 사랑을 상징한다. 그러나 이제는 다 타 버리고 다만 초의 심지만 잿더미로 남아 있다. 이러한 실연의 흔적들은 사랑의 종말 뒤에 찾아오는 비애를 일깨우며, 화자는 그 비애를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는 체념적인 태도를 보인다. 따라서 화자는 이제 더 이상 “금빛 찬란한 술잔”이나 “진한 향기 풍기는 순수한 술”처럼 환상적이고 달콤한 사랑에 유혹되지 않는다. 현세의 사랑은 순간적이어서 언제 시들어 버릴지 모르기 때문이다. 오히려 화자는 비애가 응축되어 떨어지는 눈물로 내세의 영원한 사랑이 꽃 피도록 염원할 뿐이다.

3. 病的 아름다움

자신이 존재하는 고통스런 세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존재적 현실을 인식하게 될 때, 인생에 대한 절망감과 허무감은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게 되며, 사랑했던 사람과의 불꽃 같은 애정이 차가운 잿더미처럼 식어버릴 때, 청춘과 애정에 대한 진지하고도 엄숙한 태도도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관능적인 본능에 방종하는 소극적인 방식으로써 내면의 공포감과 절망감을 발설하여 병적인 상태에 이르게 되며,⁴⁾ 결국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들어 자신들이 존재하는 세계를 병적으로 왜곡시키는 시적인 행위를

4) 朱壽桐, 앞의 책, 187쪽 참조.

통해 그 절망감을 발설한다.

- ① 창백한 옛 달이 지평선 위에서 울고
 가득한 밤 빛깔은 이슬을 적시며
 석양의 얼굴색은 창백해진다
 <창백한 옛 달>
 (蒼黃的古月地平線上泣/ 氤氳的夜色滄露濕/ 夕陽的面色蒼白了) <蒼黃的古月>
- ② 석양은 비통하게 서쪽 허공에서 머뭇거리며
 창백하게 흐려진 임종을 알리네
 —만물의 색채가 이처럼 소침해지고
 암담한 “현재”는 과거의 꾸민 황금을 벗겨 낸다
 <밤>
 (夕陽悽愴地逡巡在西空/ 告訴它底蒼黃的渾融的臨終// ——萬物的色彩這樣地消沉/ 暗淡的“現在”剝落了過去的粉飾的黃金) <夜>
- ③ 먹구름은 뿔뿔이 흰자처럼 하얀 달빛 덮어 가리고
 흰 명주로 뒤덮인 강물은 들가에 얹어진 나체의 시체처럼 흐르네
 <홍사등>
 (烏雲叢簇地叢簇地蓋着蛋白色的月亮/ 白練滿河流若伏在野邊的裸體的屍體)
 <紅紗燈>

위에서 인용된 시들을 살펴보면 한결같이 생명이 시들어 버린 핏기 없는 모습을 띤다. 인용시 ①에서는 달과 석양이 창백한 모습으로 표현되고, 인용시 ②에서도 붉은 석양이 창백하게 흐려지면서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인용시 ③에서도 “흰 명주로 뒤덮인 강물”은 마치 흰 상복을 연상케 하며, 그것은 “나체의 시체”로 연결된다. 이처럼 위에서 든 인용시를 살펴보면 어느 것 하나 화자의 내면적 절망감이 표현되지 않은 것이 없다. “창백한”, “울고”, “석양”, “비통하게”, “임종”, “먹구름”, “나체의 시체” 등의 시어는 바로 시인의 감상적이고 절망적인 정서를 암시해 준다. 이와 같이 화자를 둘러싸고 있는 병적인 환경은 바로 세계에 대한 시인의 절망감을 의미한다. 사실 고통스런 절망의 심연과 실연에 빠진 사람들에게 인생은 더 이상 생명력이 충분한 황금빛 인생일 수 없으며, 이 생명력의 결핍 상태는 곧바로 자신들이 존재하고 있는 세계에 대한 병적인 인식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병적인 인식은 먼저 생명에 대한 시들에서 비롯된다.

- ① 병든 참죽나무 꽃은 짙은 짙은 어둠 속에서 눈살을 찌푸리고
그림자 주위는 눈물 젖은 향기로 가득 차 있네
앞에서 흐르는 푸른빛은 참담하게 그을린 은이 되고
몽롱한 하늘은 늘 창백한 눈물 흔적만 띠고 있다
<그림자 속의 꽃>

(疲病的樺花幽闇裏微靨/ 陰影的周圍氤氳着泪濕的芳蕪/ 葉底漏下來的青光慘淡作熏銀/ 朦朧的天空常常蒼白的泪痕) <陰影之花>

- ② 창백한 새벽빛은 대지의 몽혼을 포옹하고
<환영>

(蒼白的晨光擁抱着大地的夢魂) <幻影>

인용시 ①의 어느 곳에서도 사물의 건강한 모습을 찾아 볼 수 없다. 참죽나무 꽃은 병들어 “눈살을 찌푸린” 채 병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그림자 주위는 눈물 젖은 향기”로 가득한 애상적인 모습이다. 잎 끝의 푸른빛은 본래 자신의 싱싱한 빛깔을 잃어버린 채 유황에 “참담하게 그을린” 은빛으로 변하고, 하늘도 “창백한 눈물 흔적”을 띠고 있듯이, 이 시에서는 주위의 모든 환경이 병든 모습으로 표현된다. 인용시 ②에서도 새벽빛은 어둠을 뚫고 대지를 비추는 눈부신 태양 이미지보다는 병들고 우울한 부정적 이미지로서의 창백한 빛으로 인식된다. 이처럼 건강한 사물에 대해 병적인 자극을 가함으로써 화자는 병적인 아름다움에 도취된다.

- ① 교회당 안은 엄숙
폐병 병원은 정숙
<일요일>

(教堂裏面 靜穆/ 肺病病院 靜肅) <禮拜日>

- ② 이른 아침의 청명함이
폐병 걸린 부인의 숨결
아 창백한 미소가 내 마음에 전해지네
희게 칠한 병원 에테르의 향기
<단음계의 가을정>

(清晨的澄明/ 肺病婦人的氣息/ 哦 蒼白的微笑送我心/ 白漆的病院ether的香氣) <短音階的秋情>

인용시 ①에서 교회당의 엄숙한 분위기가 폐병 병원의 정숙한 분위기와 동일시 될

때, 이 세계는 하나의 “회개 칠한 병원”으로 인식된다. 인용시 ②에서도 병적인 사람의 창백한 미소가 그렇게 아름다우며, 병적인 환경이 조화를 이룬다. 동시에 폐병에 걸린 사람의 숨결과 병원의 에테르의 향기가 사람을 도취하게 만든다. 이와 같이 병적인 아름다움이야말로 건강한 아름다움보다 더욱 가치가 있다는 견해는 상징주의 시인들의 세기말적인 퇴폐적 정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생명의 소멸이라는 죽음이라는 세계로 눈을 돌리게 한다.

시들어 버린 꽃이여 어찌서 너는 다시 피어
내 황량한 현재를 장식하지 않느냐

……

나는 당신의 창백한 꽃을 보길 원하네

나는 당신의 병약한 꽃을 보길 원하네

<나는 당신의 창백한 꽃이 되길 원하네>

(殘花啊) 你爲何不再開/ 飾我荒涼的現在/ ……/ 我願看你蒼白的花開/ 我願看你病弱的花開/ <我願看你蒼白的花開>

이제 화자는 자신의 화려한 인생을 장식할 새로운 애정의 꽃이 피길 원한다. 그 꽃은 생명력이 충만한 꽃이 아니라, 시들어 쇠퇴하는 꽃이다. 즉, 화려한 색채와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아름다운 꽃이 아니라 창백하고 병약한 꽃을 회귀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충만한 생명력과 아름다움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한 순간에 사라지고 말 것이며, 오히려 병들고 시들어 가는 모습이야말로 영원한 생명력을 간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은 화자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새로운 각성을 가져오게 한다. 세계에 대한 병적인 인식, 즉 아름다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바탕으로 죽음의 개념도 새로운 의미로의 변용이 가능해 진다. 따라서 화자는 이제 죽음을 공포의 의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친근하고 아름다운 심미 의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며, 이는 풍내초가 더럽고 추악한 것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추의 미학”이라는 현대시의 한 특징을 구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4. 죽음의 禮讚

죽음이 낭만적 사유의 대상이 될 때 죽음은 삶의 유한성을 넘어서게 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즉, 죽음을 운명화 된 것으로 인식하는 동시에 그 운명을 뛰어 넘을 수 있는 초월적인 것으로 본다. 이러한 죽음의 낭만적 사유는 삶과 죽음이라는 극단적으

로 대립되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구축한다. 죽음을 삶의 무화(無化)로 파악한다면, 그때의 죽음은 공포나 파괴자의 이미지로 다가온다. 반면에 죽음이 육체적 변형을 통해 영혼의 평안한 안식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죽음은 더 이상 공포적 이미지가 아닌 평안과 안식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풍내초에게서는 후자 쪽으로 무게의 중심이 실리고 있다.

따라서 현실에서의 삶이 불확실하고 허위적인 개념으로 인식되는 반면에, 죽음은 참다운 삶이 존재하는 곳이자, 생명이 꽃피는 곳으로 인식된다. 이와 같이 죽음에 대한 도취와 찬미라는 주제는 풍내초의 시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 가운데 하나이다. 죽음에 대한 찬미는 자신의 과거 생명에 대한 탄식과 결합되어 고통스런 생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해탈의 가능성으로 인식된다. 사실 청춘의 쇠퇴나 실연의 정서는 애정시를 주로 쓴 호반시인(湖畔詩人)들의 시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풍내초의 시가 그들과 다른 점은 죽음이나 무덤이라는 두려운 표현이 안식이라는 친근한 개념으로 표현⁵⁾되고 있다는 것이다.

- ① 근심과 비애가 일생 동안 멈추지 않고
아침도 가리지 않고 저녁도 가리지 않고
어디에 안식하는 무덤이 있어
내게 영원히 잠드는 안식을 주리
<죽음>

(愁苦與悲哀 一生無時息/ 不分朝 不分夕/ 何處有安息의墓塋/ 給我永眠的安息) <死>

- ② 무덤의 기념
청춘—
<소침한 고가람>
(墓墳的紀念/ 青春——) <消沈的古伽藍>

- ③ 부드럽고 매력적인 죽음의 도취를 추구하며
<타다 남은 초>
(追求柔魅的死底陶醉) <殘燭>

일반적으로 죽음이란 인생에 있어서 누구나 한 번은 거쳐야 하는 두려움으로 인식된다. 그런데 인용시에서는 죽음을 간절히 회구할 뿐, 두렵고 잔혹한 죽음의 이미지

5) 朱壽桐, 앞의 책, 243쪽 참조.

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인생이야말로 아침과 저녁을 가리지 않고 근심과 비애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화자가 두려워하는 것은 현재의 고달픈 인생이지, 결코 죽음이 아니다. 따라서 화자는 죽음에 유미적인 정서 색채를 띠게 하며, 청춘과 애정 그리고 아름다움을 죽음과 함께 결합시키고 있다. 즉, 무덤을 피곤한 인생에서 벗어나게 하는 영원한 안식으로 인식하며, 죽음을 애정의 대가로, “청춘”을 “무덤의 기념”으로 받아들이며, 부드럽고 매력적인 죽음의 도취를 추구하는 것이다.

나는 고귀함을 자랑하는 제왕이 부럽지 않네
나는 근심 없는 거지가 부럽지 않네
만일 내 백골이 썩어 문드러진다면
가늘고 긴 하얀 손이여
내 무덤에 꽃다발이나 꽃아 주오

청춘은 꽃병 속의 시든 꽃
애정은 황혼의 꽃구름
행복은 깊이 취한 봄바람
근심은 인생의 안식처

근심은 인생의 안식처
비석은 죽은 뒤의 대가
내 장엄한 비문을 새길 필요는 없어요
늘 장미꽃을 바쳐 준다면

〈슬픈 노래〉

(我不羨王者的矜貴/ 亦不羨乞丐的無憂/ 要是我的枯骨將朽/ 纖纖的玉手啲/
給我鮮花插墓頭// 青春是瓶裏的殘花/ 愛情是黃昏的雲霞/ 幸福是沈醉的春風/
苦惱是人生的棲家// 苦惱是人生的棲家/ 墓石是身後的代價/ 不用鑿我莊嚴的
碑文/ 要是常常供奉薔薇花) <哀唱>

이 시는 청춘·애정·행복의 이면에 깔려 있는 고통에 대한 어쩔 수 없는 탄식을 묘사하고 있다. 화자는 “고귀함을 자랑하는 제왕”이나 “근심 없는 거지”가 부럽지 않다. 한때는 부귀영화를 자랑하던 사람도 결국에는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는 길가의 시든 풀 속에 흩어진 이름 없는 황폐한 무덤 속으로 돌아가기 마련인 것처럼, 그들도 시들어 버린 자신의 영화를 간직한 채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잊혀질 운명이기 때문이다. 그에게서 이 세상의 청춘·애정·행복은 “꽃병 속의 시든 꽃”, “황혼의 꽃구름”, “봄바람”처럼 금방 시들어 눈앞에서 사라질 순간적인 것이며, 영원한 것은 인생에 대

한 근심뿐이다.

이때 화자는 인생의 영원한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한다. 그 가능성은 바로 죽음이다. 그는 자신이 죽은 뒤 잊혀지지 않기를 바랄 뿐, 죽은 뒤 찾아오지도 않을 무덤 앞에 놓여 있는 비석에 장엄한 비문을 새길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그는 죽음을 통해 오히려 “가늘고 긴 하얀 손”을 가진 그녀에게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영원히 살아 있는 생명의 존재로 남아 있길 바라는 것이다.

예수에 찬 성모가 예수에 찬 자식을 돌보고 있다
낮은 소리로 죽음의 자장가를 부르며—

너의 눈을 감고 가라 검은 옷의 아이여
조용하고 살그머니 죽은 것처럼
잘 자라 내 널 위해 새하얀 죽음의 옷을 덮어 주리라

황혼의 희미한 빛 널 위해 편히 조의의 종 두드리고
적막한 침묵 널 위해 안식의 아름다운 꿈을 맺는다
너는 쉬어야 한다 너는 영겁의 금불상이 아니니
보라 주위는 고이 잠자는 깊은 거울을 잠고 있다

흰눈은 거무스레한 숲을 비춘다
아름답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연의 무덤
네가 숨을 끊고 평안히 잠들면 일곱 천사가
널 위해 기꺼이 뿌연 풍금 들고 너의 영생을 찬송하리라

너의 눈을 감고 가라 검은 옷의 아이여
조용하고 살그머니 죽은 것처럼
잘 자라 내 널 위해 새하얀 죽음의 옷을 덮어 주리라
(죽음의 자장가)

(哀愁의聖母守着哀愁的孩子/ 低聲唱着死底搖籃曲// 閉你底眼睛去罷 黑衣的孩子喲/ 靜靜地 悄悄地 死一樣地/ 睡去罷 我為你蓋上雪白的死衣// 黃昏的微光為你蔽淡恬的喪鐘/ 寂寞的沈默為你結安息的美夢/ 你定要休息的 你沒有永劫的金身/ 看呀 周遭深鎖着長眠的濃冬// 一色的白雪映着灰黑的森林/ 美麗呵 世間最美麗的那無言的墓塚/ 你絕了氣息安眠之後 七個天使/ 為你怦舉 陰霾的風琴 贊頌你底永生// 閉你底眼睛去罷 黑衣的孩子喲/ 靜靜地 悄悄地 死一樣地/ 睡去罷 我為你蓋上雪白的死衣) <死底搖籃曲>

이 〈죽음의 자장가(死的搖籃曲)〉는 풍내초가 죽음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으로 찬미한 시로서, “애수에 찬 성모(聖母)”가 “애수에 찬 자식”에게 “죽음의 자장가”를 불러 주는 대목부터 시작된다. 제1연에서 등장하는 ‘성모’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모 마리아를 의미하며, 그가 안고 있는 ‘자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들은 모두 “애수에 찬” 모습으로 표현되어, 이들이 지닌 신성한 권위나 품위가 격하되고 상실된다. 사실 “애수에 찬”이라고 하는 표현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나 그의 어머니인 성모 마리아에게 부여된 신적인 권위를 고려할 때, 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특히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메시아로 태어난 예수에게 “죽음의 자장가”를 부르는 것은 묘한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성경(聖經)》에 따르면 헤롯왕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자, 그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애굽으로 도망치는데,⁶⁾ 이 시의 제2연에서는 오히려 예수에게 “조용하고 살그머니 죽은 것처럼 잠자라 내가 널 위해 새하얀 죽음의 옷을 덮어 주리라”고 죽음의 자장가를 부르는 것이다.

제3연에서는 직접적으로 죽음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한다. 조의(弔意)의 종이가 평안하게 들려 오고, 무덤 속에서의 적막한 침묵이 안식의 아름다운 꿈으로 맺어지고, 제4연에서도 일곱 명의 친사가 뿌연 풍금을 들고 죽음을 찬송한다. 죽음이야말로 진정한 영생이며 영원한 안식처이다. 때문에 화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저 무언의 무덤”이라고 죽음을 찬미한다. 이미 이 시에서는 죽음이 생명에 대한 공포와 저주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따사로운 사랑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이 풍내초에게 있어서 죽음은 더 이상 피하고 싶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고단한 인생에 영원한 안식을 주며, 사랑하는 사람과의 애정을 다시 꽃 피우게 하는 절대적 평안의 세계로 인식된다.

Ⅲ. 結論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풍내초의 《홍사등》에는 비판적이고 절망하는 정서가 가득 드리워져 있다. 이러한 정서는 인생 길을 걸어가면서 만나게 되는 형극, 다시 말해서 청춘의 쇠퇴로 인한 슬픔 및 치열했던 애정이 싸늘하게 식은 뒤에 찾아오는 고통, 그리고 고달픈 인생에 대한 절망 등으로 인해 더욱 극대화된다. 인생에 대한 절망적 인식을 바탕으로 화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를 병적으로 왜곡시키는 행위

6) 대한성서공회, 《마태복음》, 《聖經》(서울, 보진재, 1962), 2쪽 참조.

를 통해 그 절망감을 발설한다. 그리고 세계에 대한 병적 인식은 자신이 처한 현실로부터의 이탈을 가능케 한다. 그것이 바로 죽음이다. 이제 풍내초에게 있어서 죽음은 공포의 대상이 아닌, 하루라도 빨리 다가가고 싶은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온다. 즉, 죽음이야말로 고통스런 생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탈이자, 영원한 안식을 구할 수 있는 절대적 평안의 세계인 것이다. 이와 같이 1920년대 상징주의 시인 가운데 한 명이었던 풍내초의 시에는 일시적이고 가시적인 세계에서 벗어나, 영원하고 절대적인 평안의 세계를 추구하고자 하는 상징주의 문예의 심미 의식이 잘 투영되어 있다고 하겠다.

【參考文獻】

- 馮乃超 《紅紗燈》 上海，創造社出版部，1928
 馮乃超文集編輯委員會編 《馮乃超文集》 廣東，中山大學出版社，1986
 周良沛 編選 《馮乃超卷》 武漢，長江文藝出版社，1988
 朱壽桐 《情緒：創造社的詩學宇宙》 上海，上海文藝出版社，1991
 張大明 外 《中國現代文學思潮史》 北京，北京十月文藝出版社，1995
 李偉江 編 《馮乃超研究資料》 西安，陝西人民出版社，1992
 卜蒙龍 〈馮乃超與穆木天〉 《開明》月刊 第2卷 第4號 上海，1929
 邵冠華 〈馮乃超的《紅紗燈》〉 《現代文藝評論》第2卷，1931
 宋琴心 〈論創造社詩人一馮乃超論〉 《文藝》第4卷 第6期 武漢，1937
 高 穆 〈馮乃超論〉 《小說月報》第44期 上海，商務印書館，1944
 馮乃超 〈我的文藝生活〉 《馮乃超文集》 廣東，中山大學出版社，1986
 高利克 著·張文定 譯 〈馮乃超的《紅紗燈》和法國象徵主義〉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
 北京，作家出版社，1988

【中文提要】

馮乃超是中國一九二〇年代象徵主義詩人之中一。一九二七年九月，馮乃超把他一九二六年間所寫的作品匯成一本小小的詩集，交給創造社出版部，作為“創造社叢書第二十種”，於一九二八年四月出版了，書名就叫《紅紗燈》。

全書共收四十三首詩分爲八輯：一、哀唱集；二、幻齒；三、好像；四、死的情籟曲；五、紅紗燈；六、凋殘的薔薇；七、古瓶集；八、禮拜日。

他的詩作構成的情緒世界爲陰鬱可怖。他的象徵世界裏，最突出、最基本的情緒是人生的衰老，失戀的痛苦，病態的呻吟，死亡的讚美。這些都是頹廢、絕望、神秘的“現代”情緒的典型反映。

馮乃超在〈凋殘的薔薇惱病了〉中的這兩句詩來加以概括，那就是：“悲我沈默的人生憔悴/ 哀我多感的青春告衰”。他在青春、愛情、人生充滿痛苦的感歎裏表現出病態的美。他的詩作中隨處可見病弱形態和意像，從而加強了其創作的“現代”特徵和象徵色彩。一切健康的美倒顯得庸俗不堪，猶如大團圓的套式那麼媚俗，最美的形象應是凋落的、蒼白的、荏弱的、病態的。與這種病態美連繫着的是死亡。他還讚美死亡，認為“世間最美麗的”是“那無言的墓墳”(〈死的搖籃曲〉)。并問：“何處有安息的墳塋/ 給我永眠的安息”(〈死〉)。他希望在死的搖籃中尋求生命痛苦的解脫。

【주제어】 청춘 인생 고통 실연 슬픔 병적 죽음